

탈해이사금[脫解尼師今]

바다를 건너와 왕이 된 석씨의 시조

미상 ~ 80년(파사이사금 1)



1 개요

석탈해(昔脫解)는 석씨의 시조이자 신라의 제4대(재위: 57~80) 왕이다. 바다를 건너온 이주민이지만 기지를 발휘하여 신라에 정착했고,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남해차차웅의 사위가 되었다. 이후 왕실 사위의 자격으로 석씨 최초로 왕위에 올라 신라 삼성(三姓) 시조의 하나가 되었으며, 국호를 계림(鷄林)이라 하였다.

2 이주와 정착

석탈해 『삼국사기』 신라본기 탈해이사금 즉위년조를 보면, 석탈해의 이름과 관련하여 “혹은 토해(吐解)라고도 한다.”고 하여 다른 이름도 함께 전해지고 있다. [관련사료](#)의 탄생과 이주에 관한 설화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삼국유사』 기이편에 실려 있다. 먼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전하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다파나국(多婆那國)의 왕이 여국(女國) 왕의 딸을 왕비로 삼아 임신 7년 만에 큰 알을 낳았는데, 왕은 좋지 못한 일이라 하여 버리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 아내는 차마 그리하지 못하고 비단에 알을 싸서 보물과 함께 껍질 속에 넣어 바다에 띄워 어디로든 흘러가게 하였다. 껍질은 처음 금관국(金官國) 해변에 닿았는데, 금관국 사람들은 이를 거두지 않았다. 다시 진한(辰韓)의 아진포구(阿珍浦口)에 이르렀다. 신라 시조 박혁거세가 왕이 된 지 39년(B.C19)이 되던 해의 일이었다. 이때 바닷가 근처에 살던 한 할머니가 껍질을 보고 줄로 당겨 가져와 열어보니 그 안에 어린아이가 한 명 있었다. 할머니는 아이를 거두어 길렀는데, 처음 껍질이 왔을 때 까치 한 마리가 울며 따라다녔기에 까치 ‘작(鵲)’의 글자를 줄여 석(昔)으로 성을 삼았고, 또 껍질을 열고 나왔기에 탈해(脫解)라고 이름 지었다. [관련사료](#)

다음으로 『삼국유사』 기이편에는 좀 더 상세한 기록이 전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해왕 때 가락국 바다에 어떤 배가 와서 닿았는데, 가락국의 수로왕이 맞이하여 가락국에 머무르게 하려했으나 배가 나는 듯이 달려 계림의 동쪽 하서지촌(下西知村) 아진포(阿珍浦)에 이르렀다. 당시 포구 해변에 아진의선(阿珍義先)이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녀가 배를 끌어당겨 살펴보니 까치가 배 위에 모여들고 그 안에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한 사내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말하기를 본시 용성국(정명국 혹은 완하국이라고도 함) 사람으로 부왕 함달파가 적녀국의 왕녀를 맞이하여 비로 삼고 오래도록 아이가 없어 아이를 갖기 위해 기도하여 7년 만에 커다란 알 한 개를 낳았다. 이에 왕이 사람이 알을 낳는 것은 불가하다 하여 껍을 만들어 넣고 바다에 띄워 보내었는데, 붉은 용이 나타나 배를 호위하여 이곳까지 온 것이라 하였다. [관련사료](#)

위의 설화들을 통해 탈해 집단이 처음 바다를 통해 신라로 이주해 왔고, 또 처음에는 경주 동쪽 해변에 정착해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어지는 설화의 내용을 통하여 이들이 철기기술을 보유하였던 집단이었음이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탈해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 호공(瓠

公)의 집이 길지임을 알고 속임수로 취하여 살았다고 하는데, [관련사료](#) 『삼국유사』 기이편에서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전한다. 이에 따르면 탈해가 지세가 좋은 땅을 찾다가 호공의 집이 마음에 들어 그 집 곁에 솥돌과 솥을 묻어놓고 이곳이 조상 때부터 살던 땅이었음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이 일로 탈해는 호공과 시시비비를 다투다가 관에 고하여 본래 자신이 대장장이였는데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빼앗긴 것이라 주장하고 땅을 파볼 것을 요청하였다. 관에서는 탈해의 주장에 따라 땅을 파보았는데, 거기서 솥돌과 솥이 나오니 탈해의 말을 옳게 여기고 그 집에서 살도록 하였다. [관련사료](#)

이처럼 탈해가 대장장이였다는 이야기까지 아울러 보면, 탈해를 중심으로 한 이주민 집단이 해상세력과 동시에 철기 기술을 보유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호공과의 다툼과 관련된 내용은 탈해 집단이 신라 사회에 처음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사건으로도 해석된다. 이주민 집단인 탈해 세력과 선주민 집단인 호공 간에 모종의 대립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혼인과 즉위

박혁거세를 시조로 하는 박씨 집단이 왕위를 계승하던 중에 탈해는 남해차차웅 5년(8년) 남해차차웅의 사위가 되었고, 이후 남해차차웅 7년(10년)에는 대보의 자리에 올랐다. [관련사료](#) 이렇게 탈해는 남해차차웅의 딸인 아니부인과 혼인을 함으로써 박씨 왕실의 사위가 되었기에 차후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한 철기 문화를 보유한 석씨 집단이 박씨 왕실 집단과 연맹하면서 왕실 세력의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탈해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선대왕인 남해차차웅의 유언 때문이었다. 남해차차웅이 죽기 전에 말하기를, “내가 죽은 후에는 아들과 사위를 따지지 말고 나이가 많고 어진 자로써 왕위를 잇도록 하라.”라고 하였고, [관련사료](#) 이에 따라 유리와 탈해의 왕위계승 순서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자 탈해는 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가 많다고 하니 이의 개수를 따지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의 ‘잇금(잇자국)’이 많아 유리가 먼저 왕이 되었다. [관련사료](#) 이후 유리아사금이 죽음을 앞두고 “선왕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시기를, ‘내가 죽은 후에는 아들과 사위를 따지지 말고 나이가 많고 어진 자로써 왕위를 잇도록 하라.’라고 하셔서 과인(寡人)이 먼저 왕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마땅히 그 지위를 탈해(脫解)에게 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니, [관련사료](#) 탈해가 왕위를 이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문은 “이사금은 방언으로 ‘잇금(齒理)’을 일컫는 말이다. 옛날 남해왕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인 유리와 사위인 탈해에게 ‘내가 죽은 후에 너희 박·석 두 성씨는 나이가 많은 자가 왕위를 잇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그 후 김씨 성이 일어나서 세 성씨가 이가 많고 적음을 가려서 왕위를 이어갔으므로, 이사금이라고 칭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관련사료](#) 이를 통해 이 시기 왕위계승의 원칙은 장자계승보다 연장자 우선의 원칙이 중시되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왕을 지칭하는 신라의 고유명사인 이사금의 어원이 ‘잇금’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남해차차웅의 아들인 유리와 사위였던 탈해가 모두 왕위계승권자 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연장자 우선 원칙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유리아사금의 뒤를 이어 탈해가 이사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4 재위 중의 치적과 죽음

탈해이사금은 이주민으로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왕이 되었지만, 이때 나이가 이미 62세였다. 왕위에 오른 후 탈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주 초기에 자신이 집을 빼앗았던 호공을 대보로 삼은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석씨 왕실이 박씨 족단과 연합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일로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한 해석이다. 이를 통해 이주 세력인 탈해 집단, 혹은 석씨 세력은 기존 유력 집단인 박씨 세력과 연합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재위 3년에 왜국과 우호관계를 맺었으나, 백제와의 관계는 어그러져서 탈해이사금 8년(64)부터 와산(蛙山)·구양(狗壤)의 두 성을 비롯해 이후 4~5회에 걸쳐 백제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던 중에 탈해이사금 9년(65) 3월 시림(始林)에서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확인해보니, 금궤(金櫃)가 나무에 걸려 있고 그 아래 흰 닭이 있었다. 궤를 열어보자 용모가 단정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가 김알지(金鰐智)였다. 왕은 시림을 ‘계림’이라 고치고 국호로 삼았다. [관련사료](#) 『삼국유사』에는 이 일을 4년(60)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탈해가 알지를 태자로 책봉하였으나 후에 알지가 왕위를 양보하여 파사에게 물려주었다고 되어있다. [관련사료](#) 11년(67)에는 박씨의 귀척

(貴戚)으로 주·군(州郡)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고 주주(州主)·군주(郡主)라 하였다. 21년(77)에는 가야의 군사와 황산진(黃山津)에서 싸웠다고 한다.

탈해는 57년 62세의 나이로 즉위하여 80년까지 23년간 재위하였다. 24년(80) 가을 8월에 죽었으며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성 북쪽 양정 언덕에서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관련사료](#) 그런데 『삼국유사』 기이편에서는 탈해이사금의 죽음에 관하여 신이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탈해가 재위 23년 만에 세상을 떠나 소천구(疏川丘)에서 장사를 지냈는데, 신(神)이 명령하기를 “내 뼈를 조심스럽게 물어라.”라고 했다. 그 두개골의 둘레는 3척 2촌이고 몸 뼈의 길이는 9척 7촌이나 되었다. 치아[齒]는 서로 붙어 마치 하나가 된 듯하고 뼈마디 사이는 모두 이어져 있었다. 이것을 부수어 소상(塑像)을 만들어 안치하자 신이 다시 말하기를, “내 뼈를 동약에 안치하라.”라고 하여 그곳에 모셨고 지금까지 국가제사가 끊이지 않으며 동약신(東岳神)이라 부른다고 전한다. [관련사료](#)

탈해이사금을 비롯하여 신라의 시조들은 이주민으로서 왕이 된 사례가 많은데, 그 중 해상세력이었던 탈해이사금은 기존 선주민과의 충돌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왕실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탈해의 생애에 대한 기록에는 신화 혹은 설화적인 요소가 많지만,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주세력과 선주민의 충돌·신라 초기 왕위계승원리·고유 왕명인 이사금에 대한 해석 등 특정 역사적 사실을 암시하는 대목이 많으며, 이와 함께 초창기 신라 역사를 주도하였던 3성의 하나로서 석씨 집단의 활동 양상을 보여준다.